

Take a Brake!



“이봐, 한번 해봤어?” 故 정주영 회장
‘기업인 최고의 어록’ 中에서

THE BUNKER

XTM <더 벙커 6> 출연!
전문가들도 인정한 브레이크 패드 -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HARDRON

•Power 탁월한 제동력 •Soft 부드러운 승차감 •Quiet 조용한 제동음 •Clean 깨끗한 휠 관리

더 벙커 시즌6 최종편(16화) _ 브레이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Take a Brake!



相信

Sangsin Magazine
Winter 2016 Vol.117



거안사위 [居安思危]

평안(平安)할 때에도 위험(危險)과 곤란(困難)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對備)해야 함





www.sangsin.com

Sangsin Magazine contents

2016 Winter Vol.117

02	Photo essay	대표이사 김효일
04	신년사 I	상신노동조합 위원장 이만호
06	신년사 II	생산부 환경안전팀 주임 박성룡
08	신입사원	직장생활 잘하는 법
09	직장생활 팁	우수사원 일본 견학, 함께하면 즐거움은 두 배, 힐링 여행
10	우수사원 해외 견학	생산부 P성형반 박동호 조장 / 생산부 소형슈 2반 최선규 조장
12	전시회 소감 I-라스베거스	화려한 라스베거스 속에서
14	힐링	2015년 라스베거스 자동차부품박람회 AAPEX
16	2016 띠별운세	난초네 옆집에는 베고니아가 산다
18	핵심인재 고도화	재미로 보는 병신년(丙申年) 새해, 나의 운세는?
20	창사 40주년 행사 I	핵심인재 의식고도화 교육
22	창사 40주년 행사 II	2015 바이어 초청 행사
24	전시회 소감 II-중국	상신브레이크 국내 대리점 초청행사
26	창찬릴레이	꿈을 향한 첫 번째 발자국, 상해 자동차부품박람회
28	일상탈출	기획실 정보화혁신팀 임채영 과장 / 연구부 기초연구팀 권성욱 선임연구원
30	신간도서	낙동강 제1경 상주 경천대(擎天臺)
31	신작영화	낙동강 천삼백리 물길따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쉰다
32	상신갤러리	잠깐이면 돼
34	상신뉴스	나를 잊지 말아요 / 레버넌트 : 죽음에서 돌아온 자
38	재미더하기	2015년 송년회 / 워크샵
39	참여코너	간디의 한마디
		퀴즈

통권 제117호
 발행처: 상신브레이크
 발행인: 김효일
 발행일: 2016년 1월 8일
 기획·제작: 상신브레이크 기획실
 TEL: 053.610.8326
 편집디자인: 한동기획 TEL: 053.252.4834



불가능을 가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던 것처럼

글 대표이사 김 호 일



상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야 할 2016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항상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내수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 IMF 이후 처음으로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한계를 뛰어넘는 강한 도전의식으로 회사의 비전 실현을 앞당기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해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경제가 숨가쁘게 변화하는 지금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위기이지만, 준비된 자에겐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긍정의 힘으로 IMF, 서브프라임 등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왔고, 우리 상신의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때, 임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꼭 명심합시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업무에 매진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지금의 성과 이상으로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상신 가족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위대한 상신브레이크의 저력을 만방에 떨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차게 나가십시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한 상신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운과 만복이 가득한 한 해 되길 바라며...

글_상신노동조합위원장 이 만 호



상신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 아침 희망찬 설계를 하셨는지요.

누구나 마음속으로 올 한 해의 소망을 담아 새해 아침을 맞았을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높게, 더 크게 나아질 것을 희망하는 것은 새해에 거는 기대감이면서 또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고비 고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서 임단협을 비롯한 현장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새해 들어 우리의 환경이 결코 녹록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창립 40년을 맞이하며 테크노폴리스에서 상신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부푼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새 동지에 자리를 잡자마자 세계 경기는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일컫는 중국의 경기 침체, 급격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중동과 러시아 시장의 위축 등은 지난 시절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 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현장에는 일감이 부족하게 되고, 이는 고용안정과 생계비 확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노동개혁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관계는 이해가 엇갈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관계는 더욱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조합원뿐만 아니라, 상신의 모든 임직원이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권익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상생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모든 조합원과 상신 임직원의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6 NEW YEAR 신입사원

글_ 생산부 환경안전팀 주임 박성룡

●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꿈을 향해 오늘도 도전하는 박성룡

●상신브레이크 입사 소감 및 포부는?

안녕하십니까?

2015년 10월 12일부로 상신브레이크의 가족이 된 생산부 환경안전팀 박성룡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상신브레이크라는 점이 너무 감사하며 입사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부족한 점도 많지만 주위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회사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신브레이크의 법정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 도전하는 자세, 성실한 자세를 바탕으로 상신브레이크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선배님들께서는 제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법 T I P

일반적으로 '직장생활 잘하는 법' 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업무를 잘하면 모든 직장생활이 술술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상태와 마음가짐이다. 단순한 일의 성과 보다는 대인관계, 애사심 등이 직장생활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 회사에 대한 애사심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없다면 한 직장에서의 장기근무는 불가능하다. 단순히 회사의 복지나 사람들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있어야 한다. 업무 하나하나가 회사 전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회사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업무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 자신의 일 같이 일하기

각 부서별로 고유의 업무분류는 존재하지만 업무 일정이 촉박하다 보면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직장 동료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결국 감정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일의 구분을 떠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일, 그리고 자신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동료 간의 관계 회복과 즐거운 직장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 대화를 통한 소통

직장이란 장소는 일하는 곳이기때 지속적인 업무간의 소통은 가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어떤 업무이건 대화를 통한 소통이 가장 정확하고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진심 어린 대화는 동료간에 오해를 깔끔하게 없애주는 장점이 있다. 직장의 상사이건 동료이건 오해는 생길 수 있다. 작은 오해로 시작해 큰 오해를 사는 법이니 오해가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여 오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우수사원 일본 견학 함께하면 즐거움은 두 배, 힐링 여행



생산부 P성형반 박동호 소장

상신
우수사원

안녕하세요. 생산부 P성형반 박동호 소장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통해 좋은 곳으로 견학을 시켜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견학 가기 전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4박 5일 동안 함께한 동료들이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일본은 깨끗한 거리, 불법주차 없는 곳, 많은 소형차, 친절하 시민, 특히 깨끗한 바다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바닷가에 가면 바다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그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철저한 수질관리, 시민의식이 바탕이 되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본의 훌륭한 점은 본받아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깨끗한 회사, 나라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앞으로는 저부터 실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산부 소형슈2반 최선규 소장

상신
우수사원

안녕하세요. 생산부 소형슈2반 최선규 소장입니다. 이번 우수사원을 대상으로 한 4박 5일 기간 동안의 해외 견학은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히로시마, 교토, 오사카를 견학하며 특유의 건축문화를 감상하고 역사를 알게 되었고, 일본인들의 생활방식 등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좋았던 것은 직장 동료와 이색적인 장소에서 이런 추억에 남을 여행을 즐기며 마음껏 힐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면 다시 일상적인 일로 복귀하겠지만 한동안 이번 여행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회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신브레이크 파이팅!



글_ 해외사업부 해외영업3팀 이현지 사원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담당자로 맡게 된 후 떠난 첫 출장, 바로 라스베거스 자동차부품전시회 AAPEX이었다. 전화로만 연락하던 미국 법인 직원분들도 만날 수 있고, 이메일로 수주를 받고 회신을 했던 바이어들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니 설레었다.

공항을 나와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선인장들을 신기해 하며 바라볼 틈도 없이 낮부터 화려한 색색의 불빛으로 가득한 라스베거스 중심에 도착했다. 전시장 근처의 모든 호텔들은 AAPEX 기간이라 정장 입은 외국인들로 가득했고, 카지노 기계에 기대서 비즈니스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출장을 실감했다.

2015 AAPEX

화려한 라스베거스 속에서
2015년 라스베거스 자동차부품박람회



미국에서 진행한 전시회는 한국에서의 전시회처럼 부스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전시 부스에 사용할 텔레비전을 사러 가는 것로부터 시작하여, 옆 부스에서 청소기를 빌려 청소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전시장의 모든 정리를 끝내고 세계적인 대기업을 사이에 있는 상신브레이크 부스를 보고 있으니 뿌듯했다.

전시장 규모가 너무나 커서 화장실까지 가기가 귀찮을 정도였지만,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이곳저곳 부스들을 돌아다녔고, 기대 이상으로 상신브레이크 부스를 찾아주었다. 기존 거래를 하던 바이어가 인사 차 방문하기도 하였고, 상신브레이크를 알아보고 거래를 위해 찾아오는 바이어까지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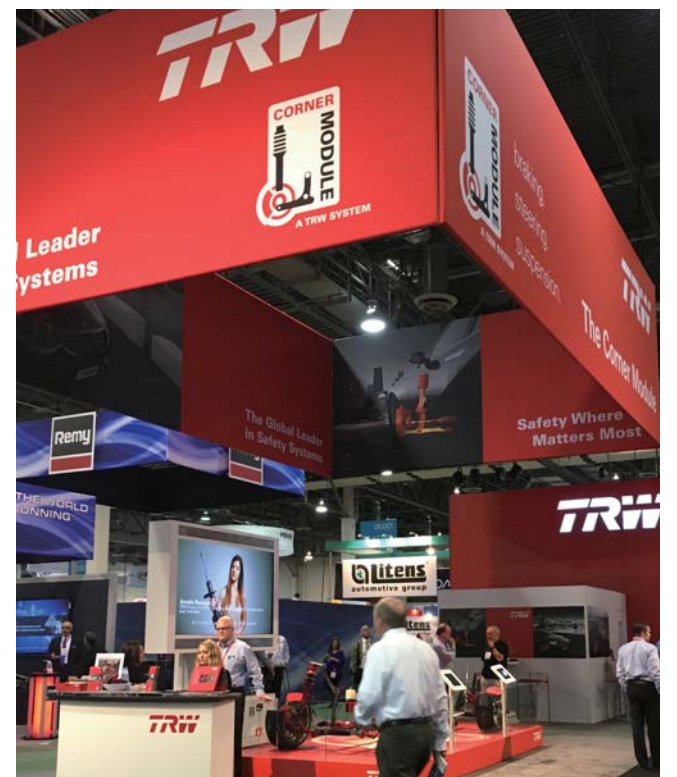
미국 업체는 확실히 미팅 분위기가 자유로웠다. 요구하는 내용들도 직설적으로 표현하였고, 단순히 브레이크를 판다는 목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추구하고 있었다. 상신은 한국 신규차종 선 공급 가능성을 어필했고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가졌다. 또한 실제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 왔던 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미팅을 하기도 해서 상신브레이크 부스의 분위기가 한층 밝았던 것 같다.

마지막 날에는 시간을 내어 지하에 모여 있는 아시아 전시장을 둘러보았다. 반 이상이 중국 업체였고, 그 사이에 한국 업체들이 비좁게 모여 있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상신브레이크가 아시아 전시관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부스들이 작고 조용했다. 아시아 업체 중에는, 더 나아가 한국 업체 중에는 몇 안 되는 업체가 국제관에 부스를 두고 있는데 상신브레이크의 위치가 뿌듯했다.

입사 후 첫 미국 출장의 느낌은 고등학교시절 어학연수로 미국에 갔을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자동차 브랜드, 차종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래 업체들의 간판을 찾기 알췄었다. 다

시 한 번 미국이라는 큰 시장을 몸소 느꼈다. 상신브레이크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바이어들과의 대화를 통해 업체와 소통하는 업무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

미국시장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브랜드 사양에 맞게 포장재부터 재질, 하드웨어 하나하나 신경써서 공급해야 하는 까다로움도 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을 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브레이크 제조공정과 사양에 대한 지식을 넓혀, 나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난초네 옆집에는 베고니아가 살다

글_ 노정희(현 계간 “문장” 편집위원 · 수필교실 강사)

“아! 보세난에 꽃대가 올라와 있었다. 베란다에서 찬 기운 건디고 당차게 올린 꽃대는 부화하기 직전의 송고한 모습으로 동지를 틀었다. 화한 백학이 되고, 코끝 아릿한 향기의 홍학이 되어 날개를 펼칠 그 자태를 상상하며 마음이 먼저 꽃을 피웠다. 밤낮으로 들여다보고픈 욕심이 앞서 난 분 세 개를 거실로 옮겼다.

십여 년도 넘었을 게야, 친구 집에서 한 줄기 얻어 온 타이거베고니아는 저희들끼리 엉덩이를 비비면서도 잘 자라주었다. 여기저기 분양해 주었는데도 무성하여 해마다 꽃대를 올리는 강인한 생명력을 보인다. 난초 옆에 타이거베고니아를 겹살림하니 모양새가 어울린다.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 설 전날, 장롱 위에 올려 둔 비상금을 꺼내려다 반침대가 기우뚱하여 넘어지신 것이다. 손자들한테 줄 세뱃돈은 장롱 위에서 쿵쿵 게으른 잠을 잤다. 어머님은 온화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분이려 차도가 빨랐다. 병원에 계시니 더운밥에 세면장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 되레 시골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 편하다고 하셨다.

옆 병상에 할머니 한 분도 같은 날 입원을 하셨다. 설 준비하느라 바쁘게 일하다가 넘어졌는데 골반 뼈가 부러졌다고 한다. 며느리들은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다며 아들들이 차례로 다녀갔는데 내 손길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할머니는 한 움큼의 쥔단처럼 가벼웠다. 병상에 누워서도 집안일을 걱정하였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셨다.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정신 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시며 겹겹 말아두었던 지나간 시간을 황설수설 풀어내고 있었다.

집으로 가야한다며 몸을 일으키다가 수술한 골반 뼈가 어긋나 침대에 묶이는 형편에 까지 이르렀다.

추운 날 몸져누운 두 할머니, 허리 굽은 떡갈나무마냥 평생을 가족위해 헌신하며 산골마을에 뿌리 내린 두 분은 형광등 불빛 아래 각각의 표정을 짓고 계셨다. 어머님은 TV연속극에 귀를 여시고, 할머니는 내가 읽어 주는 잡지 속의 글귀에 귀를 여셨다. 한참 책을 읽다가 돌아보면 하얀 빛을 쏟아내는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도토리 굴리듯 대구루루 시선을 떨어뜨렸다. 자그마한 체구의 할머니는 창백하게 시들어 갔다.

거실로 옮겨온 난초는 겉보기에는 탈이 없었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꽃망울이 말라서 배배틀어지는 게 아닌가. 물을 뿌려주고 영양제를 주었는데도 기어이 꽃망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았다. 자신이 자라던 환경이 아니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와 반대로 타이거베고니아는 따뜻한 거실에서 꽃대를 힘차게 올렸다. 화드득 무리지어 피어난 흰 꽃은 때 지은 참새마냥 무수히 날개를 퍼덕였다. 검붉고 두툼한 잎사귀가 건강함을 과시하며 화사함보다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어머님은 두 달간의 병원생활을 마쳤다. 업혀서 들어갔던 병원문을 걸어서 나오셨다. 군위 한밤마를 훑씨덕 만발로 아버님께 시집올 때는 고운 꿈을 꾸셨겠지. 그러나 운명은 알곳어 어머니를 힘들게 했다. 사십대 후반에 남편 여의고 어린 육남매 바라보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슬픔에 잠 못 이룬 날이 하루이들이었겠는가, 어머님은 동지에 있는 새끼들을 돌보아야 했기에 그 힘든 현실에 대처하는 나름의 방법을 익혔을 것이다.

스스로 아름다운 꽃이길 포기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강인한 들꽃이 되기를 자처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담담하게 병원 문을 나서는 어머니 눈길에 같은 병실의 할머니 걱정이 물컹거렸다. 완전히 정신 줄을 놓아 버린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뒤틀며 허공에 휘휘 손을 저었다. 날고 싶은 게야, 훨훨 날아서 집으로 가고 싶은 게야. 끝내 그 새는 이승에서 날개를 펼치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 빛살 속에 새들이 날아와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지난해의 그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다시금 보세난 두개의 분에서 꽃대가 올라온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자고 마음먹으며 툼툼이 베란다에 나가서 꽃망울을 들여다보았다. 연둣빛과 갈색빛깔의 날개를 펼친 모습이 고고하다. 난 옆집에는 여전히 베고니아가 살림을 하며 올망졸망 참새 눈알 같은 꽃망울을 달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오늘, 베란다에 꽃향기 분분하다.

HAPPY NEW YEAR

Season's Greetings and Best Wishes

재미로 보는 병신년(丙申年) 새해, 나의 운세는?

2016 띠별운세



쥐띠 |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펼치기에 좋은 시기, 재물이나 소득에서 성취를 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한 해의 흐름이 자신에게 길하게 작동하니 새로운 사업이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자신을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거나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자신의 기력과 체력을 잘 관리하여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자.

소띠 | 비교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한 해이다. 특히 재운이나 관운에서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다. 마음을 크게 먹고 과감하고 용맹한 기세로 움직이도록 하자. 올 한 해의 성과는 연초와 상반기에 자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있다. 자신이 기울인 노력만큼 좋은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호랑이띠 | 순조롭고 안정된 한 해이나 봄과 가을에 변화의 운이 있다. 봄의 변동은 새로운 흐름을, 가을의 변화는 봄의 변화에 이어지는 변화이다. 원하는 것이나 목표로 하는 일이 있다면 이 흐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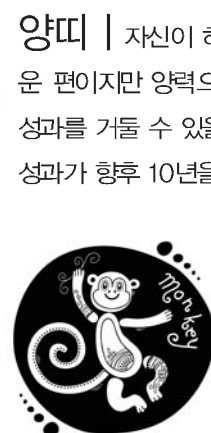
토끼띠 | 작고 사소한 것은 버리고, 크고 높은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 올해 당신은 험하고 어려운 길과 쉽고 평탄한 길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면 올해를 놓치지 말자. 가을을 전후하여 관운이 좋은 편이니 시험이나 경쟁에 있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용띠 |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한 해이다. 봄부터 시작하여 좋은 일들이 이어지며, 금전적으로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격증이나 입사 등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해이니 기회가 된다면 꼭 도전해 보도록 하자. 항상 자신감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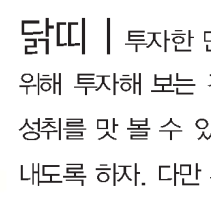
말띠 | 좋은 운의 흐름이 들어와 있으니 재물을 얻거나 사회적 성취를 얻을 수 있는 한 해이다. 그동안 자신이 기울였던 노력을 이제야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다. 혹시라도 그동안 해오던 일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결실을 맺도록 하자. 의외의 기회와 뜻하지 않았던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눈을 크게 뜨고 있도록 하자.



양띠 |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상반기에 힘을 집중하도록하자. 한 해 운의 흐름이 순조로운 편이지만 양력으로 6월 이전의 운이 좋은 편이다. 연초에 계획을 잘 세우고 힘을 기울인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는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준비하는 해라고 볼 수 있다. 한 해의 성과가 향후 10년을 좌우하는 만큼 한시라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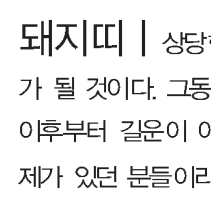
원숭이띠 |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게 되거나 새로운 큰 흐름을 타게 된다. 한 해의 기운이 자신과 잘 맞아 떨어지니 운의 흐름이 순조롭고 힘과 활력이 솟구친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좋으며, 새로운 일을 계획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올해 여름에 시작하는 일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닭띠 | 투자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한 해이다. 금전을 위한 재테크도 좋지만 자신의 능력 개발을 위해 투자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봄이나 여름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면 빠른 성취를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 내도록 하자. 다만 투자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으니 노력이 없다면 돌아오는 것도 없다는 것을 유념하도록 하자.



개띠 | 올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정하도록 하자. 재물이면 재물, 명예이면 명예, 애정이면 애정 등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올해는 가을 이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의외의 행운이나 뜻밖의 횡재를 기대해 보아도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돼지띠 | 상당한 길운이 자신과 함께 하는 해이다. 자신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자. 양력 5월 이후부터 길운이 이어지고 있으니 여름 이후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면 좋을 것이다. 그동안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분들이라면 건강을 회복하거나 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기다.



SANGSIN BRAKE

핵심인재 의식고도화 교육

변화를 이끄는 '5일 드라마', 새로운 나를 만나는 도전!
누구나 핵심인재가 될 수 있다.
행동을 통해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나아가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구매부 구매2팀
이주목 과장

“당신은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무작정 전진하는 최선이 아닌, 올바른 목표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는 ‘자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최~~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녀온 사람만 아는 이 문장과 자세!



▲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알고는 있지만 몸과 마음이 따로 놓입니다~

생산관리부 제품관리팀
이장원 과장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적당히’라는 마음가짐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반성을 통해 제 자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오늘은 체력단련 하는 날~
췌! 다들 오늘 하루만이라도 목소리를 좀 아끼자구.



▲ 지난날에 대한 반성~ 반성~ 반성~
결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부 생산1팀
윤기현 과장

핵심인재 의식고도화 교육, 받아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가기 싫은 교육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번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번 쯤 받아볼 만한 교육이야!”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었고, ‘최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던 뜻깊은 교육이었습니다.



▲ 고소공포증도 이겨내는 최선의 힘!
(하지만 저 자세로 5분 동안 있었다는 것)



▲ 학창시절에도 열심히 하지 않은 공부를~
이렇게 집중해서 결국 최선상 획득!

40th Anniversary

2015 바이어 초청행사

글_러시아 MERA社 대표이사 IGOR SHE

2015 NOVOTEL, DAEGU



SANGSIN BRAKE



Oct. 22, 2015 NOVOTEL, DAEGU

2015년 10월 22일, 상신브레이크 설립 40주년을 맞아 바이어 초청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규모가 큰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한 분들의 노고에 감탄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초대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초청 행사로 인해 특별한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첫날 축하공연에서 한국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 주어,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즐거웠습니다. 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전통 무술 태권도를 숙련된 기술로 선보여 감탄에 감탄을 더하였습니다.

특히 전통 한복 패션쇼는 마치 파리의 패션쇼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패션쇼 마지막엔 귀빈들에게 한국 전통 한복을 입어보게 하고, 패션쇼처럼 무대 위를 걷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모든 바이어들이 한국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즐거워하였습니다. 더욱 더 좋았던 점은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한데 모여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행사를 즐겼던 부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공장투어와 본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장투어를 하면서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지는가를 보게 되니 신기해서 눈을 땔 수 없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는 세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쉽게 이해하며 구경하였던 것 같습니다. 공장투어가 끝난 후 방문한 본사는 테크노폴리스로 이전하여 예전 건물



보다 더 현대식으로 만들어져 넓고 멋졌습니다. 미래를 위한 설비 투자 및 기술연구가 더 큰 규모로 발전한 것을 보고 저희 또한 판매에 더욱 더 힘 쓸 것을 다짐 하였습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생산, 홍보, 해외무역, R&D 센터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해오신 모든 직원 분들이 우리 같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신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전 직원분들 및 가족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행운이 있을 시길 바랍니다.

상신브레이크 국내 대리점 초청행사

창사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1월 두 달에 걸쳐 국내 대리점 초청행사가 있었다. 이번 초청행사에 참석한 50여 명의 대리점 대표들이 대구 테크노폴리스에 자리잡은 본사와 R&D센터, 1·2공장, 제품창고 등을 둘러본 후 남긴 격려의 글을 소개한다.



수도권 대리점 오찬



대구

대구 상신상사 대표 박두열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의 역사 40년. 그동안 세월 속으로 사라진 업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신브레이크입니다. 이번 방문, 견학을 계기로 시장점유율 1위 기업답게 엄청나게 발전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 개발 설비들은 많은 노력과 투자로 상상 이상으로 발전된 모습이었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렇게 연구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회사의 모습을 택시나 버스 등 운수회사의 정비관리자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신대리점으로서의 자긍심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상신브레이크가 국내를 넘어 세계 1위 브레이크 라이닝 회사로 도약하길 기원하며, 빨리 그 모습이 보고 싶어집니다. 상신 가족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보내며, 우리 대리점 가족들은 계속 영업 현장에 같이 있기를 염원합니다.



서산

서산 세림상사 대표 성백현

지난 11월 13일, 상신브레이크 본사에 대전 지점 직원들과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처음 본사 방문을 하게 된 경험이 나에게 상신브레이크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생산시설과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였으며, 좋은 시설과 경험 많은 노하우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설비투자과 기술연구에 노력하는 본사의 운영방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상신브레이크의 연구개발과 신규 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며, 많은 신규 품목과 고품질의 제품을 기대하겠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시스템의 미래, '상신'을 봅니다.



서울

서울 선일상사 대표 이규완

안녕하세요. 이규완입니다. 선일상사는 장안동에 위치한 상신브레이크 대리점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약 30년, 상신과의 인연도 30년이 되었군요. 담당자로부터 본사 이전 소식을 듣고 궁금해 하던 중, 대리점주 본사 방문 초청 소식을 접했습니다. 설렘과 궁금증을 안고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본사와 연구소를 보았을 때 건물 크기와 새로움에 놀랐고, 구지에 위치한 창고를 방문해서도 그 규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많은 제품을 보며 판매에 더욱더 힘 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상신브레이크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상신브레이크 임직원분들이 북 많이 받고 승승장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신브레이크 홍보관 관람

인천 로이상사 대표 유동진

안녕하세요, 인천 검암동에서 로이상사라는 대리점을 운영 중인 유동진입니다. 저는 상신대리점을 시작한 지는 4년차이지만, 상신라이닝을 취급한 지는 16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화로애락을 같이 한 상신브레이크이기에 이번 본사 방문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회사의 규모와 공장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회사의 비전 발표와 패드공정 견학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업 현장에서도 상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영업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모두들 파이팅해서 부자됩니다. 상신 파이팅!



인천

광주 광주상회 대표 정재훈

최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완공된 신사옥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즐기게 비가 내렸고, 빗속을 뚫고 달리는 광주에서 대구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차량에서는 흐린 날씨 탓인지 불투명한 자동차부품 내수 시장에 대한 우려와 상신브레이크 제품에 대한 이런 저런 명암이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사옥에 도착해 보니 기대 이상의 새로운 상신브레이크가 우리를 맞아 주었습니다. 예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신브레이크, 어수선하고 분주하기만 할 것 같은 브레이크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하이브리드를 연상시키는 단아한 자태의 상신브레이크 본사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과 함께 있는 연구개발동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설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생산라인은 잘 정비되어 있었고, 물류시스템과 자재관리 공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마찰재를 진정 고품격 도자기라고 불러도 결코 부족함이 없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온화하면서도 담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신 대표이사님의 환대와 격려에 또 한번 상신브레이크 대리점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상신브레이크는 도약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멀어지는 상신브레이크 신사옥을 바라보며 상신브레이크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 보았습니다.



광주

부산 경신브레이크 대표 김문찬

3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멀리서도 새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를 받아가며 이곳저곳을 흥미롭게 본 것과 감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물류창고와 연구센터는 정말 혼자 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저희 직원들도 꼭 방문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직원들과도 대화를 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3년 전 방문 이후 저희 경신브레이크는 새로운 건물과 설비를 갖춰 놓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미래에 나아갈 비전을 생각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신 가족으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부산



2015년 상해 자동차부품박람회 꿈을 향한 첫 번째 발자국

해외사업부 수출관리팀 우종원 주임



중국의 단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인산인해, 낭중지추(人山人海, 囊中之錐)'이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과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가 혼재하였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금은 부족한 듯 보였다. 그러나 그 무질서 속에서도 중국은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그 위상이 무질서마저도 압도하는 느낌이었다.



암탉 한 마리의 모습을 닮았다는 중국 지도, 그 심장부에 위치한 상해는 명실상부한 중국 경제의 중심이다. 상해는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국내외의 새로운 문물을 흡수해 온 국제적인 상업도시이다. 영국에 의해 중국 최초로 개방된 항구도시였지만, 그 화려했던 모습은 공산당 집권 후 대륙의 이방인

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978년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자 상해는 활력을 되찾았다. 동양의 또 다른 홍콩을 꿈꾸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중심 도시가 되었다. 6,000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상해는 다른 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색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로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지구 전체의 15분의 1을 차지하고, 전체면적이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이 거대한 중국의 중심부 상해에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상해자동차부품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에는 5,30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143개국 100,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해외 우수 마찰재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한 것에 반해 국내 업체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추세였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우시법인은 세계경제 위기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몇 안 되는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우시법인은 뚝기 어렵다고 소문난 중국 로컬 자동차 업체 중 90% 이상에 납품을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리상 체제를 도입하여 보수용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세계시장의 흐름을 볼 때 중국의 수출경쟁력 향상은 한국 상품과의 경쟁 격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객의 물음에 시원하게 답해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전시회 기간 내내 더 많은 고객을 만나 그들의 소리를 듣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우시법인과 대리상 연합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열정이야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칭찬합시다 I

추천 연구부 연구팀 최성우 대리

지난 호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추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이번에 추천하고 싶은 주인공은 기획실 정보화혁신팀 임채영 과장님입니다. 주인공으로 추천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사려가 깊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입니다. 두 번째는 연구소 내 각종 전산화를 혼자 고민하고 개발하기 때문에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매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유입니다. 임채영 과장님은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겪어보았지만, 항상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며, 한결같은 모습의, 배울 점이 많은 선배인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하였고, 이런 자리를 통해 추천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임채영 과장님~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모습, 파이팅 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소감 기획실 정보화혁신팀 임채영 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 정보화혁신팀 임채영 과장입니다.

먼저 칭찬릴레이에 선정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앞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연구소 전산화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구원들이 연구/개발한 Data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직원들과 항상 대화를 많이 하고,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점을 찾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고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사기가 올라가는 일이 있는데, 칭찬릴레이에 선정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를 무척이나 고무시키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합시다 II

추천 기획실 정보화혁신팀 임채영 과장

저는 다음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연구부 권성욱 선임연구원을 추천합니다. 연구소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타부서 연구원들과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권성욱 선임연구원이 정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을 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권성욱 선임연구원은 연구부 선임이나 후임직원이 업무를 편하고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항상 개선안을 내었고, Data 취합이나 정리 같은 하기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며 부서를 위해 일하는 모습이 정말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물관계도 아주 좋아서 누구에게나 편하게 다가가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본인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은 칭찬을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밝은 미소를 보여주는 권성욱 선임연구원을 추천합니다.



소감 연구부 기초연구팀 권성욱 선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연구부 기초연구팀 권성욱입니다.

처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했습니다. 항상 사보 칭찬릴레이 주인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칭찬받아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 주인공이 되니 조금 부끄럽습니다. 타부서와의 업무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당부로 받아들여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 년에도 모두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 제1경 상주 경천대(擎天臺)

낙동강 천삼백리 물길따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신다

경천대는 낙동강 천삼백 리 물길 중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이다.

솟구쳐 오른 바위 위로 송림이 우거져 있고, 아래로는 굽이굽이 도는 물길에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 경천대의 옛 이름은 '자천대(自天臺)'이다. '하늘이 스스로 만든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경천대' 이름은 조선시대 우담 채득기(1604~1646) 선생이 지었다고 한다. 우담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볼모가 되어 심양으로 가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을 수행했던 인물이다.

우담이 고향으로 낙향한 뒤 이곳의 풍경에 반하여 작은 정자를 짓고 머물면서 경천대라 지었다고 한다.

우담이 지은 정자는 '무우정(舞雩亭)'이다. 무우(舞雩)란 '춤을 추며 비를 빈다'는 뜻이다. 정자는 기우제터 우담(雩潭) 위에 세워졌으나, 선생은 자연을 벗 삼아 도를 즐긴다는 풍호영귀(風乎詠歸)의 뜻을 취하여 그 이름을 삼았노라 밝히었다. 임진왜란 당시 명장 정기룡 장군이 무예를 닦고 말을 훈련시켰다는 전설을 담은 흔적들도 경천대에 남아 있다. 경천대 입구를 들어서면 인공폭포가 보이고 그 옆에 '정기룡장군 동상'이 있다.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널리 알려진 명장으로 젊은 시절에 이곳 경천대에서 수련을 쌓았다고 한다. 장군이 타고 있는 말 역시 경천대부근 '용소'에서 출현했다는 신비의 말이다

경천대를 중심으로 잘 꾸며진 공원 시설은 한나절의 가족나들이에 부족함이 없다.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를 즐기기에 알맞은 산책로가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즐기기에 좋다. 낙동강과 경천대가 어우러지는 풍경을 제대로 보려면 전망대를 찾아가야 한다. 정상까지 오르는 오솔길은 세라믹 황토 자갈이 깔린 산책로다. 맨발로 시원한 발마사지를 즐기는 것도 상쾌하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만나는 출렁다리와 구름다리도 이색적이다.

또한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이색 조각작품도 볼만하다. 국내산 버짐나무(플라타너스, 수령 100~120년 추정) 원목으로 조각한 작품들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작품명을 붙이지 않았다. 작품 속에 숨어 있는 동물들을 찾아보는 즐거움도 있다. 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조각상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할 뿐 특정한 종교나 사상과 전혀 무관하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각하는 동안 작품 속에 숨어들었고 누군가 이들에게 말을 걸어오면 살머시 나와 얘길 한다네, 그래서 사람마다 들은 이야기가 다르다네. 자네에겐 어떤 얘길 하던가? 아직 못 들었으면 꿈에서 듣게나.”

- 길손 이찬희 선생 담소(談笑) 중에서 -

대구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로 1시간여만 달리면 도착하는 상주, 경천대 주변의 자전거박물관과 꽃감공원 등과 연계해도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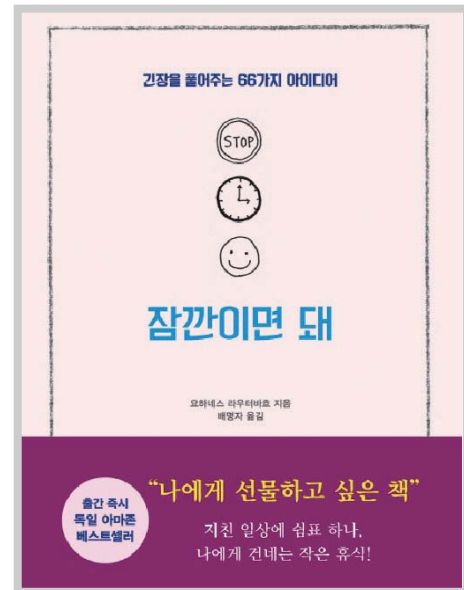
잠깐이면 돼

지친 일상에 쉽표 하나,
나에게 건네는 작은 휴식!

요하네스 라우터바흐 지음

배명자 옮김

비즈페이퍼 펴냄



‘잠간의 휴식’이 갖는 66가지 방법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긴장 속에서 생활한다. 과도한 업무와 경쟁, 연일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시간에 쫓긴다. 요하네스 라우터바흐가 쓴 ‘잠깐이면 돼’는 일상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를 줄여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틈틈이 쉬는 것, 잠간의 휴식이다.

‘잠깐이면 돼’ 책은 그야말로 ‘잠깐이면 충분한’ 시간 동안 긴장과 스트레스로 딱딱하게 경직돼 있었던 몸과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일단 몸에 악하면 너무나 간단해서 왜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지만, 이는 우리가 그만큼 ‘잠간의 휴식’을 잊고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인드컨트롤과 명상 등 독일에서 건강관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66가지의 ‘잠간 휴식’ 방법을 제안한다. 간단한 체조와 호흡, 일상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도 휴식이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했던가, 나도 모르게 나를 압박하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놀라울 정도다. 저자는 또한 자신의 제안들을 반드시 모두 실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그저 긴장을 풀기 위해서이므로, 할 수 없는 것에 강박을 갖거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해서 미련을 갖지 말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두면서 편하게 느끼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가 몇 초간 긴장을 푼다고 해서, 몇 분간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결국 휴식도 습관이다.

틈틈이 쉬는 습관이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를 잊지 말아요

장르 멜로 로맨스 | 한국 | 감독 이윤정
출연배우 정우성, 김하늘

이 영화는 2010년 단편으로 제작된 동명 영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단편을 각본, 연출한 이윤정 감독은 배우 겸 제작사 대표이기도 한 정우성의 도움을 받아 영화를 장편으로 만들어 정식으로 총무로에 데뷔했다. 이 영화는 교통사고 후, 10년간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깨어난 석원(정우성)과 그 앞에 나타난 비밀스러운 여자 진영(김하늘), 지워진 기억보다 소중한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을 그린 감성 멜로다. 사고 후 석원은 자신의 인생을 3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게 된다. 기억은 없지만 사고 전에는 사법고시에서 패스해 꽤 잘나가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우연처럼 마주친 진영과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 석원의 사고 당시 차안에서 발견된 퍼즐은 그의 흩어진 기억의 조각을 상징한다. 퍼즐 외에도 나름의 복선 장치가 곳곳에 담겨 있다. 결정적인 복선은 아니지만 나중에 돌이켜 보면 ‘아, 그래서’ 라고 깨닫는 정도는 된다. 예상 가능한 결말이 펼쳐지기는 하지만 영화는 애초에 반전의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잔잔함에 초점을 맞춰 싱겁지만은 않다.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나를 잊지 말아요〉처럼 모든 긴장을 풀고 편하게 볼 영화가 분명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1월 7일 개봉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장르 모험, 드라마 | 미국 |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출연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하디, 동놀 글라스

2016년 첫 감동 대작인 이 영화는 서부 개척시대 이전인 19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화색곰 사냥에 나섰다가 동료에게 배신당해 아들을 잃고 죽음 직전에서 살아 돌아온 사냥꾼 휴 클래스(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복수극을 그린 영화이다. 제작진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남아있는 야생으로 유명한 캐나다와 아르헨티나에서 주로 촬영을 진행하며 19세기 모피 사냥꾼들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광활한 대자연에서 펼쳐지는 압도적 스케일의 로케이션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ριο는 〈레버넌트〉에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주인공 ‘휴 클래스’를 연기하며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며 복수에 불타는 남자의 처절함을 리얼하게 연기해내 인생 최고의 호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톰 하디 또한 동료를 배신하고 디카프리오를 죽이려 한 사냥꾼 ‘존 피츠제럴드’를 연기하며 비열한 악역 연기를 선보인다고 한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톰 하디의 역대급 열연, 그리고 아카데미가 인정한 명장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연출로 관심을 모은다. 2016년 1월 14일 개봉

Pieces of memories

2016 WINTER Sangsin Gallery

HAPPY NEW YEAR



시험평가부 2016년 하나되는 시평 파이팅!



기획실

2016년 상신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획 정혁 파이팅~!



품질경영부

2016년 품질! 검사! 파이팅!



생산관리부 가족같은 생산관리팀! 사이좋은 생산관리부~



설계부 & 선행개발팀

송년회도 상용 부서답게 통 크게!
2015년을 마무리하며 다가올 2016년의
더 큰 목표를 위해~!



생산 부문 워크샵

2016년도 생산 부문과 함께 모두 파이팅!



상신이엔지 워크샵 2016년 새롭게 도약하는 상신이엔지, 혁신의 해!



2016 SANGSINBRAKE NEWS



33회 SAE 제동 학술대회 참가

당사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열린 '제33회 SAE Brake Colloquium & Exhibition'에 참가하였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및 내연기관 관련 산업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단체이다.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SAE 규격의 재/개정 간행물 발행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동장치와 관련하여 매년 미국에서는 전세계 제동관련 업체들이 참가하는 SAE 제동 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GM, FORD, TOYOTA, HONDA, 현대·기아 등의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하여, TRW, Brembo, Advics, Continental 등의 브레이크 시스템, 마찰재, 심 제조사 등 약 200여 개의 전세계 브레이크 관련업체와 연구기관이 참가하였다.

브레이크 평가방법, 성능, 소음/진동, CAE 및 마찰 원재료 개발 등 제동 관련 분야에서 70여 편의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같은 기간 동안 약 60여 개의 제동 관련 시험/분석 장비, 원재료, 심 및 마찰재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금년 당사 기술연구소는 NVH 분야에서 디스크 브레이크의 스킵 노이즈에 관련된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해외사업부와 미국법인은 전시회에서 부스를 마련하여 당사 마찰재의 홍보와 수주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술대회의 공식 스폰서십에 참여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우리 상신브레이크의 이름을 다방면으로 세계에 알리도록 노력하였다.

2015년 장기근속자 여행

당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2주간 장기근속자들을 대상으로 가족여행을 실시하였다. 연 1회 실시되는 이 행사에 올하는 근속년수 20년이 되는 직원 15명과 가족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대만의 명소 관광과 이색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하나같이 상신의 가족으로서 회사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장기근속자 예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5년 해외바이어 초청 행사

당사 창립 40주년 기념과 본사 및 연구소 개소식을 맞이하여 해외사업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총 28개국, 80여 명의 수출 바이어를 초청하였다. 초청 행사는 대표이사 및 관계사 사장단을 포함한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보텔에서 진행한 기념식과 1·2공장, 제품창고, 본사 및 연구소 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초청 행사를 통해 당사는 공정관리의 우수성과 품질의 신뢰도에 대하여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바이어들은 1·2공장의 자동화 설비와 청결한 작업환경, 연구소의 최신 장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 3대 사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를 관광하였다.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과 붉게 물든 가야산의 가을 풍광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다.

당사는 이 행사를 통해 각국의 바이어들과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였고, 이는 2020년 글로벌 Top 8, 나아가 'Beyond the Friction, To the Global Leading Brake System Company'라는 최종 목표달성의 단초가 될 것이다.



Winter www.sangsinsin.com



2015년 사내 동반대회 실시

당사는 지난 10월 25일 청도 운문사에서 사내 동반대회를 실시하였다. 심신단련과 화합을 목적으로 한 이날 행사에는 직원 49명과 가족 10명이 참가하였다. 동반은 운문사 입구에서 사리암까지의 왕복 3시간 걸리는 코스로 진행하였다. 운문사는 비구니 사찰로 여느 곳보다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일주문으로 향하는 오솔길은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으며, 가지런히 서 있는 소나무들이 전해주는 잔잔한 평온함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직원 및 가족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며,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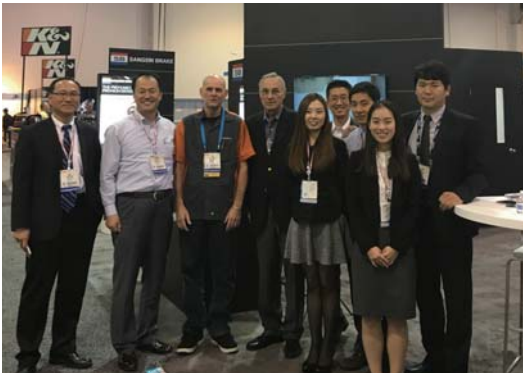
2015년 우수사원 해외견학

당사는 지난 10월 20일부터 4박 5일간 해외견학 및 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이번 견학은 우수사원 및 우수 TFT 팀원 19명을 대상으로 일본 히로시마, 교토, 오사카의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당사는 매년 우수사원을 선정하여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증진을 도모하고 노사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전사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고자 해외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업대리점 대표 본사 초청행사

당사는 본사 이전 및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우수대리점을 중심으로 전국의 약 60여 대리점 대표를 본사로 초청하였다. 이 행사는 본사 및 연구소, 1·2공장, 제품창고 방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리점 대표들은 하나같이 상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2015년 북미자동차부품전시회 참가

당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전시회 'AAPEX 2015'에 참가하였다. 세계 140개국 2,400여 사의 다양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참가한 이 행사에 당사는 대형 독립 부스를 마련하여 전시 및 홍보활동을 하였다. 당사는 전시회 기간 동안 공급 품목 증가와 신규 업체 발굴에 노력하였으며, 기존 거래 업체뿐 아니라 다양한 고객들과의 미팅 시간을 가졌다.

당사는 향후에도 관련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한국 신규 차종을 다른 경쟁사들 보다 빠르게 공급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 SANGSINBRAKE NEWS

2015년 영남대학교 당사 견학

지난 11월 6일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진 5명, 학생 73명이 당사를 방문하였다. 이날 행사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당사 소개를 위한 설명회를 가진 후 연구소 견학으로 진행되었다. 견학은 관련 전공 학생들의 산업현장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다. 현재 당사는 영남대학교와 산학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력과 기술면의 많은 정보교류는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유지시켜줄 것이다.



월드클래스 300 유공자 포상식

당사는 지난 11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주최로 열린 '월드클래스 300 유공자 포상식'에 참가하였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기업의 수출확대, 기술확보, 경영혁신 등의 성과 제고에 명확히 기여한 기업 및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해외사업부 김상년 부장은 '수출 확대' 부문 중기청장상을 수상하였다. 월드클래스 300이란 정부에서 2020년까지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300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마케팅, 인력개발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당사는 2011년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5천만불 수출(2011년), 7천만불 수출(2013년), 1억불 수출(2015년) 달성 등 수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노사합동워크숍 실시

당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1일차에는 '즐거운 일터, 행복한 소통', '노사리더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강의는 경영관리자들과 노동조합 핵심 리더들에게 열정과 신뢰의 일류기업 달성을 위해 '우리 진정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노사리더들의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 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2일차에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관람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앞으로도 화합하는 노사관계와 즐거운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015년 상해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당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간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에서 열린 상해 자동차부품 전시회(Automechanika Shanghai 2015)에 참가하였다. 매년 열리는 이 전시회에 올해는 총 143개국 5,300개의 자동차부품 업체들이 참가하였다. 전시회 기간 동안 당사는 행사장내 부스를 설치하여 제품 등을 전시하였으며, 당사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전시회는 자동차부품과 부속, 액세서리, 튜닝 장비류 전문 전시회로 자동차 시장의 동향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전시회이다.



Winter www.sangsinsin.com



1억불 수출의 탑, 국무총리 표창

지난 12월 10일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다. 이날 당사는 최근 3년간 수출액을 약 40% 증가시킨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13년 '7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이후 2년 만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다. 더불어 최현배 해외사업 상무이사는 수출유공자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015년 한 해 동안 세계 경기 악화, 국제 유가 하락, 중국 경기 둔화, 엔저 현상 등 대외적인 악조건으로 수출 신장이 둔화되었으나, 당사는 이를 해외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16년에는 수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였다.

2015/2016년 경영검토회 실시

당사의 15/16년 경영검토회가 지난 12월 11~12일 경주 한화론도에서 실시되었다. 경영검토회에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임원 및 부서장, 그리고 계열회사 및 해외법인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 부서는 15년 주요 업무 실적 및 16년 목표를 발표하였고, 임원들은 15년 회고와 16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2016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 자동차산업발전 유공자 시상식

지난 12월 31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 주최로 '대구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자동차산업 발전에 공헌한 대구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엔지니어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날 당사 연구소 김상조 전무이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제동 마찰제 기술 개발로 인한 해외시장 개척,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역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으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장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시무식

당사는 지난 1월 4일 임직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김효일 대표이사는 지난해와 같이 '편안하게 지낼 때도 위기를 항상 생각하며 대비하라'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신년화두로 제시하며, 지금의 성장과 화합에 결코 안주하지 말고 더욱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만호 노동조합위원장은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며, 어려운 시기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다시 도약하는 상신브레이크가 되길 당부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우수부서, 제안포상, 우수사원에 대한 시상 및 장기근속자 근속 기념 포상도 있었다.





간디의 한마디

간디가 영국에 유학중일 때 간디를 못마땅하게 여긴 피터스라는 거만한 교수가 있었다. 교수는 식민지 출신인 주제에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간디를 골탕 먹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돼지와 새

어느 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간디를 발견한 피터스 교수가 식판을 들고 간디 옆에 앉았다. “여보게, 자네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같이 앉아 식사를 하는 법은 없는 거라네.”하고 시비를 걸자, 간디는 교수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 되거든요.”



돈 자루와 지혜 자루

화가 난 교수는 보복을 하려고 시험을 어렵게 냈으나 간디의 성적이 워낙 잘 나와서 시비를 걸 수가 없었다. 교수는 간디에게 물었다.
“여보게, 만약 하늘에서 돈 자루와 지혜 자루가 떨어지면 자네는 무얼 줍겠나?”
간디는 냉큼 대답했다.
“돈 자루요~!”
교수는 혀를 치며 말했다.
“역시 식민지 출신은 어쩔 수 없군. 나는 지혜 자루를 택하겠네.”
교수가 비웃자 간디는 한마디를 던졌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각자 자신에게 부족한 걸 필요로 하니까요!”



성적과 서명

간디를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는 피터스 교수는 리포트 채점란에 성적을 기재하는 대신 ‘Idiot(멍청이)’라고 써서 간디에게 주었다.
이것을 받아든 간디는 이렇게 써서 교수한테 전했다.
“교수님, 제 리포트에 성적은 안 쓰였고 교수님 서명만 쓰여 있네요.”

참여코너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엽서를 통해 상신 기획실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Quiz 1. 무엇이 똑같은까? (아래 사진들을 보고 서로 관계있는 사진 2장을 연결해 주세요.)



지난호 1번 정답



지난호 2번 정답



Quiz 2. 틀린 부분 5곳을 찾아주세요.

